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무용의 특성에 대한 제언

박순자(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요약

국내 교회는 각 교단별로 대량, 대형교회의 증식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통한 기독교 주요지표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기독교 단체가 편의점 보다 많다는 분석결과를 보도하였다(2017. 3. 17). 교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전도와 선교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수단 중 무용은 교회에서 예배, 행사를 통하여 많이 참여되었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Gene Edward Veith, 1951~)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든 예술을 위해서든 예술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는데(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19) 이러한 측면에서 무용은 다양하게 기독교적 목적을 가지고 발달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김왕기는 문화사역 초기에는 많은 시간을 시대성 발견에 집중하며 그 시대성을 세계 통합, 주제와 과학 발달,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문화사역의 소명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김왕기, 1999, 4-5).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 후 가나안의 문화 즉 세상 문화 속에서 굴복하였던 것은 문화의 위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탄의 문화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과 함께 하는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사명 가운데 무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1)”는 말씀처럼 신앙과 삶, 그리고 온사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사역의 도구 중 무용을 통한 선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즈음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무용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반적 무용에 대한 연구 및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무용 지도자들이 무용을 완성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기적 측면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현재 기독교적 무용계의 현상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영혼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적 무용인이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자아성찰 및 신앙적 입신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적 무용을 모방하고 유사한 무용으로 연출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성실하게 노력하고 창작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여섯째, 교회에 예속되어 있거나 지도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무용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예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 신앙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다 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한다. 일곱째, 유행을 따르고 세속적 세상을 좇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무용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용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무용선교사역자들이 양성되길 바란다.

주제어 : 무용예술, 기독교무용, 기독교적 목적, 선교무용의 특성, 선교무용

I. 들어가는 말

국내 교회는 각 교단별로 대량, 대형교회의 증식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통한 기독교 주요지표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기독교 단체가 편의점 보다 많다는 분석결과를 보도하였다(2017. 3. 17). 교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전도와 선교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수단 중 무용은 교회에서 예배, 행사를 통하여 많이 참여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무용이 예배와 선교의 수단으로서 그 쓰임새가 증가한 반면, 회중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작품의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혼란이 미흡한 무용수, 작품에 부합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화려한 헤어·메이크업·의상, 삶과 일치 되지 못하는 기독교무용수의 이중성 등(최수진, 2016, 79) 본질을 잃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예배의 한 요소로 이루어지는 기독교무용이 오히려 방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사역 초기에는 많은 시간을 시대성 발견에 집중하며 그 시대성을 세계 통합, 주제와 과학 발달,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문화사역의 소명에 대하여 집중하였다(김왕기, 1999, 4-5).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 후 가나안의 문화 즉 세상문화 속에서 굴복하였던 것은 문화의 위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탄의 문화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과 함께 하는 문화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든 예술을 위해서든 예술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19). 특별히 문화사명 중에서도 무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는 말씀처럼 신앙과 삶, 그리고 온사에 적용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사역의 도구 중 무용을 통한 선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즈음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에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적 무용의 활성화와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적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일반적인 무용의 특성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 등을 신체 움직임 즉 해부, 기능, 생리학적 요인을 수반한 동작과 음악, 문학적 요인인 주제, 주제에 의한 구체적 내용 전개, 연극적 요인의 내·외면적 표현, 광학적 요인인 조명, 의상, 무대장치, 무대에서의 공간 활용 등을 미학적 총체적 구성 및 연출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무용만이 갖는 특성으로서 타 예술과는 달리 개별성과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고바야시 신지, 1983, 24). 즉 무용은 무용을 공연하는 사람이 몸과 동작과 내면의

표현을 하는 주제적 분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예술에 대해서는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에 의하여 접근한다. 무용은 “예술은 모방이다”라는 모방론은 인간의 성격이나 감정 혹은 행동을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모방하는 것이 무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근거한다. 플라톤은 무용예술을 육체와 울동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정의하였지만 이데아(Idea)와 미(美)는 별개의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모방론은 유익하면서도 생산적인 가치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서 무용가들에게도 예술의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무용가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표출해내는 수단으로서 모방이라는 예술표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김수진, 2015, 13).

표현론에서의 무용에 대하여 마리 뷔그만(Marry Wigman, 1886~1958)은 인간의 신체 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였으며, 방정미(邦正美, 1908~?)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적 운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무용은 생각과 감정, 정서 등을 신체의 몸짓을 통해 형상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형식론에 근거한 무용은 모방이나 표현이 아닌 움직임 그 자체에 쓸데없는 표현을 가미하지 않아야 하며, 쓸데없는 표현이 가미된다면 무용의 순수함을 떨어뜨린다는 앙드레 레빈슨(Andre Levinson, 1887~1933)의 주장과 같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움직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무용의 정의는 창조론에 의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무용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이 형상화 되도록 하신 것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어 무용 표현을 통하여 그 특성을 유지, 확대 표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예술분야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음악에서 성악은 인체의 보이지 않는 생체학적 요인인 마음과 성대, 두뇌를 호흡을 통하여 표현함이 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기악은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하지만 표현의 수단을 다른 매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용과 상이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 무용이 갖고 있는 특성 중 취약한 점은 무용이 자신 스스로 하든지, 타인에게 전달하든지 그 내용이나 동작이 본래의 원형에서 쉽게 변형 및 변질되어 전달되거나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악 및 기악에서 음표를 통한 표현 및 전달은 무척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학, 연극이나 영화 등도 문자 및 언어, 영상촬영 등으로 원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용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최상의 몸과 내면, 영혼 등과 그 외의 종합예술분야의 협력에 의한 총체적 분야 이기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고도의 분야인 것이 특성의 특성이라는 것을 깊이 숙지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III. 기독교무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에서 기독교무용은 1980년대부터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885년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무용은 무용이라기 보다는 손유희, 율동의 형식으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한국 어린이 진도 협회를 통해 보급되고 활성화되었다(구진영,

2015, 51). 이후 ‘워싱턴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무용이 실행되었다(김종희, 2005, 51). 그러나 기독교 무용은 ‘무용’이라는 특성으로 교회 내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공연되었으며 그 이유는 교회 내에서 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과 예배 안에서 기독교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최수진, 2016, 21).

1995년 이루어진 변형정의 조사에 따르면 무용은 중요절기(42.8%)와 행사(39.1%)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약 10여년 후 이루어진 2006년 이지연의 조사에서 역시 교회의 주요 절기나 행사(84.3%)에서 주로 행해졌을 뿐 예배 때 마다 행해진 비율은 1.7%로 불과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 2010년에 이루어진 이정인의 연구에서 매주 예배에서 행해지는 비율이 31.5%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절기(27%), 행사(31.5%)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인의 연구에서 매주 무용이 실시 될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교회에서 열린예배라는 예배의 방식이 확산됨으로 인한 증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조선휘, 2017, 2~3). 이후 2016년 이루어진 최수진의 연구에서도 기독교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역시 절기(51%)와 타문화권 선교사(44.1%)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예배에서 필요하다는 비율은 10.2%에 불과하였다. 즉, 오랜 시간에 따라 기독교 무용이 다방면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공적인 예배에서의 활용은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1980년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외부적 선교활동에 무용이 사용된 것이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에 무용전공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회 내·외면의 다목적적 무용의 진전에서 선교의 목적에 쓰임 받는 무용전공자들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30 여년간 무용선교 사역을 하며 국내·외로 돌아다니며 보면 가끔 무용전공자들을 만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알게 된다.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답습하여 적용,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형적 현실을 바탕으로 거듭난 지 30여년 된 본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부여 받은 은사 발견 및 활용은 용이하지 않았다.

정한 기간 동안 예배와 성경읽기, 기도하기, 교육의 반복과정을 통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지도자의 권면과 기도, 도움 등에 의해 삶과 은사 등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절정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교회 출석기간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훈련 후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무용의 사명자들이 의외로 비전공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 성령의 체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임을 증명한다. 또한 전공자들과 교제하며 사역을 할 때에는 개인적 체험이지만 무용자체가 우상이 되어 영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았던 체험 등으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다. 결국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진리요, 능력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 15-16)” 하셨을 때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천국 열쇠를 주신 것과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무용선교의 참여하는 자들의 고백이며 축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2004년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에서는 기독교무용의 목표를 일반적 목표와 구체

적인 목표로 세밀하게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인 목표는 기독교무용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듭나며 관념적 기독교 무용문화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개성 중심적인 무용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반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목상과 분별을 통한 실천, 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의 조직적 확산 및 통합, 인재 양성의 조직화, 단계화, 일반화, 기독교무용 문화의 모델 제시 및 발굴, 보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기독교무용인은 무용을 도구로 복음화하고 이를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용실기 및 이론의 영적 재조명, 대학 및 무용교육 전반에 걸친 전공자들의 기경화, 복음화 무용의 일반적 이해 및 확장을 위한 선교, 무용 예술 및 예술인의 선교화, 선교적 차원의 무용론 연구팀을 양성하여 기독교무용인으로서의 체험 및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박순자, 2004, 92).

기독교무용인은 지상명령과 축복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 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 가운데에 무용사역자가 비전공자가 많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믿음의 열정이 분명하고 강하다. 현 상황에서는 유튜브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기 내용에서 밝혔듯이 신앙의 훈련, 교육이 반드시 수반된 가운데 무용의 전반적인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

둘째, 교회 내에 무용전공자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공지 및 구역 모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신앙적 교육과 더불어 동기부여나 기쁨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도우며 무용적 계량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다. 모교회의 발레단은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통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단원들을 교제 및 증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사례이다.

셋째, 무용의 장르가 다양하며 많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행사용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교회 내에서는 출세급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러한 신앙적 범죄를 막기 위해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많은 장르를 적체적소에 연령, 성별, 목적, 능력별 등으로 분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교회에 연중 문화행사가 많다. 교회절기별 행사, 진도를 위한 행사, 국내의 선교를 위한 행사, 부서별 행사 등을 통해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가운데 의례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 순간 팔 다리를 움직이는 능력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매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조해야 한다(Clive. Staples Lewis, 2001, 224). 칼빈, 루터 등 세기적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한 과제들을 우리는 오늘,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신앙의 역사성을 존귀히 가슴에 새겨 실족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일반적인 무용전공자들의 총체적 환경 즉 지도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관계 지도내용, 교육자의 자질, 교육방향, 목적 등이 비기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구별되고 걸려져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환경과 내용 등이 전수되어야 한다. 즉,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늘, 수시로 깨어서 목상하며 삶의 실제사를 드러야 하기 때문이다. ‘왜’의 물음은 거부의 물음이 아니다(신앙과 삶, 2019, 11). ‘왜’라는 물음 속

에서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에 대한 차이와 분별력을 갖는다면 더욱 단단한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용 또는 무용수에게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집중’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주위 현장에서 외적인 시각과 소리, 내적인 생각과 감정, 스테이지 등을 한번의 초점을 맞추어서 신체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무용이기에 집중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기독교 무용도 본질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김 테일러, 제시 테일러 공저, 박종길 옮김, 1996, 109).

여섯째, 교회 내에 다양한 유형과 집단이 형성되어 여러 무용지도자들과 소속 인원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같음에도 세속적 갈등과 시비, 적대감 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무용지도자 및 소속 성도들을 위한 질서 있는 체계와 운영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의 교육과 섬김이 필요하며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돌아봄이 필수적 사항이다.

일곱째, 일반무용에서도 온전하고 쓸만한 장색의 그릇이 될 정도가 되려면 다양한 내용과 연습, 체험의 나눔 등이 필요하다. 일반무용계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고등학교까지 독립적인 무용교과서와 무용 수업이 없이 대학 진학을 위해 이루어진 무용교육으로 인하여 지도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인성 및 인격형성을 할 수 있는 무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박순자, 2009, 44). 이는 지도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적 무용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적인 교육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쉽게 적응해 가는 편이다. 전 과정 속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목적을 위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일반적 무용이론 및 실기를 신앙적으로 숙고한 내용들을 나누는 과정이 필수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학 무용교육에는 인체해부학, 생리학, 기능학, 역학, 무대효과론, 미학, 교육학, 무용역사, 예술론, 창작론 등의 이론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의 실기를 이수한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를 존중하며 표현의 매개체로서 주관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으로 돌아가 무용에서의 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박순자, 2009, 49)는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무용의 완성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완만히 단계적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무용에 대한 완성도를 추구할 필요성을 갖는다.

여덟째, 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인 무용수와 동작은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앞서 밝혔다. 이에 무용의상과 분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주제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치 영화 및 연극배우들이 주제에 따라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적 변화 삶의 환경과 조건 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상이나 분장에 있는 것과 같다. 격차나 어색함, 인위적인 요인이 없는 곱삭은 음식의 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럽고 진솔한 역할에 그 기능과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은 치장한 여인이 아닌 가정에서 밥을 짓고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같으며 축적된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적 요구인 것이다(톨스토이, 1988, 2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을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거나 1차원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상의 색상, 디자인, 친의 선택 등 유행을 따르려는 요소나 타 무용수들이나 전문적 무용수들이 무대공연을 위해 착용할 수 있다. 스타일을 일반적으로 깊은 고려가 부족한 가운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분장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빚어주신 은혜의 모습을 존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본연의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려는 의지보다 세상 풍습에 의한 기법, 색상, 재료들을 사용함으로 은혜가 임하는 기독교무용인들의 공감대가 순수한 연기자들이

브라운관이나 연극무대를 통하여 깊이 형성되는 귀한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작품에 함당한 화상이 아닌 개인적 상황과 경쟁, 비교 등의 마음으로 하였을 때 기독교적 무용을 할 때 넘치는 은혜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순간 '왜 이렇게 지나친 화장을 하느라 수고를 했을까?'라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스스로 겸연쩍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또 지나친 몸매나 멋에 치우쳤던 의상들이 움직임에 합당치 않아서 스스로 책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칠되고 아름다움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린도전서 10:23)”고 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함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의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은 곧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육체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라디아서 5:24)”고 하였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이유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정욕, 탐욕, 안목, 이성의 자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기독교적 무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독교 문화는 논함에 있어 그 시작은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는 어떠한 기독교적 예술의 독창성도 표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이상열, 1995, 27).

이후에, 공간 구성 및 조명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용에서 위치 방향성, 거리, 속도, 등·퇴장 등의 연구를 통하여 무용의 효과를 연구, 적용해야 한다. 마치 사무실, 식당, 가정, 공연, 극장, 커피숍 등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는 엄밀한 연구과정을 거쳐 행복하고 효율적인 삶의 질을 높여간다. 그렇듯이 무용에서 앞서 밝힌 모든 과정과 내용을 잘 완수하는 가운데 무대공간 사용은 무용의 효과를 더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다. 무대라는 공간은 안무가가 작품을 무용수에게 넘겨주는 공간이며 무용수와 관객이 교류하는 핵심의 공간이다. 따라서 연습의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되어야 하고 작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그 책임의 결실이 지워지는 공간이 무대임으로 안무가는 최종 리허설 중간에 작품을 수정하기 보다는 무용수들이 작품과 무대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박순자, 2012, 251). 그러므로 상세한 무대, 소품, 음악, 의상 리허설 등이 필요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공간은 실내·외, 운동장, 열린공간 등 교회에서 행하는 경우도 예배당의 공간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무용 전공자들이 공연하는 극장의 조건과 형태보다 더욱 다양하여서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여 적극적 효과를 성취하려면 선교의 현장에서 항상 고정관념을 벗어나 그 현장에서의 창의적 대처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을 선택할 때는 새롭거나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예배의 목적, 예배의 전체적 테마, 그리고 안무자의 의도 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수잔 바우어, 2000, 248).

무용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높이, 등·퇴장 할 수 있는 출입구, 준비할 수 있는 대기실, 등의 확인 및 적용은 내용과 음악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는 무용에서 즉흥적 대처 또한 늘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필

수조건이기에 연습하며 준비할 때, 또 리허설 할 때 원래 예상하였던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적극적 순종을 통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곳에서 하든지 사전 답사 및 지식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지만 선교가 핵심이기에 예상하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늘 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교회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과거에 비해 교회에 조명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다. 무용을 전공하며 무대공연을 해 온 경험으로 일반 무용예술 공연은 공연의 예술적 미를 추구하고 감상하기에 객석은 암전하고 무대에는 전문적 조명기술을 최대한 사용하여 무용수의 무용미를 확대하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살피서 기계적 조치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기타 선교 목적으로 하는 무용은 본질이 예배용, 기도용, 은혜의 나눔이고 성령의 소통함이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있는 장비 및 조명기술은 대형 공연 및 순수예술로서의 대작으로 연출하는 경우 외에는 자연스러운 빛이 기독교적 무용의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기독교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적극적 표현이요,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요, 사랑과 경배의 마음이요 신체의 움직임 통한 고백이며 이러한 인간의 신체운동을 통하여 기독교 사상과 종교적 체험과 감각을 표현하며 종교적 가치관단을 나타내는 것이다(신명희, 2008, 40). 즉, 지나친 과장 확대, 축소로서 인위성을 배제하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며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류, 교제 되어 지는 것이 교회에서 선교적 차원으로서 무용의 본질을 확장, 집중 하는 것이 선한 사역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도 교회 및 기타의 공간에서 기독교적 무용을 할 때 지나친 조명 사용이나 회중석에 암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중과 무용하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로 이분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헌분이신 하나님의 크신 품과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 된 성령의 공간에서 무용을 할 때 행위자 스스로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며 웃고 우는 성도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산제사요 헌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서로의 모습처럼 특별히 인위적, 조작적인 것으로 차별화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며 주님께 울러드리고 고백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주셨다. 하루를 사는 동안 빛 가운데 두시고 어둠을 통해 수면과 휴식, 회복, 치유를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빛의 원리가 기독교 무용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빛 즉 조명의 기술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행위로 더욱 발전하는 것도 과제이다. 늘 깨어 주님께 이웃에게 함당한 기독교적 무용이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육체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사도바울의 고백으로 발전 될 것을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기독교적 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무용의 특성은 외면적으로 춤추기, 율동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등 1차원적으로 쉽게 접근되는 일반적 개념에 머물고 있다. 깊이 학문적으로 심화작업 및 연구를 하여보면 크고 깊은 심오하고 장대한 작업의 결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무용은 단순한 율동에 머무는 현상에서 이미 벗어나 무척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특성을 기독교적 문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즈음 구원을 허락하신 큰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욱 하나님이 지으신 몸과 움직임, 창의적이고 기록한 표현력, 믿음과 성령에 중심을 두고 영혼구원의 선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묶은 땅을 기경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용사요 춤추는 목회자로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 및 분석을 통해 다음의 제언을 하며 결론을 맺는다.

첫째, 기독교 무용지도자 및 무용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한 끈은 신앙으로 준비되도록 신앙훈련을 한다.

둘째, 무용예술의 정의에 속한 하위 개념들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분별,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목상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전공자들 중심의 지도자들이 무용의 일반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선교무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무용 비전공자들을 위해 일반적 무용의 기초지식의 이해 및 연구를 통해 교육하며 교육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연구 기관을 설치한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항상 섬김과 화목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과 기도, 말씀의 목상으로 협력하여 선을 즉 사랑으로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 내·외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독교무용의 합당한 활용을 위해 무용전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교회 책임자들이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무용의 다양한 장르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충만토록 분별하고 활용하는 연구의 장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독교 무용지도자들의 지도방법, 내용, 자세, 언어 등이 거듭난 자로서의 인격과 지도철학을 내구화 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교육하여 파송해야 한다.

여덟째, 기독교 무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표현과 전달을 위해 다수의 연습과 수정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숙지 된 표현을 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

아홉째, 선교 전 연습과 선교 현장과의 차이점을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운다. 동작, 무대 조명, 의상, 분장, 무대공간 사용, 리허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예상하며 선교적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목적에 합당한 기독교무용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기독교 무용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Clive Staples Lewis (2001). **순전한 기독교인**. 서울:홍성사.

고바야시 신지 (1983). **무용미학**. 서울:현대미술사.

닥 아담스, 다이안아파스톨로스-카파도나, 김명숙 옮김, 2000. **종교와 무용**. 서울: 당그래. 수잔 바우어(1974). **순수 공연예술로서의 예배무용**

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서울:나침반.

짐 테일러, 제시 테일러 (1996). **무용심리학**.

톨스토이, 이철 옮김 (198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범우사

김왕기 (1999). **총칼없는 전쟁, 문화사역 이야기**.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구진영 (2015). **성경의 문화적 사명과 선교무용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희 (2005). **현대 예배에 따른 기독교무용의 역할**.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자 (2009).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회 28권

박순자 (2012). **성서에 의한 무용창작의 완성과 조건**. 서울: 스포즈북스

신명희 (2008). **기독교 무용의 성경적 고찰과 예전적 활용**.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열 (1995). **기독교와 예술**. 서울: 한글출판사.

최수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지연 (2017). **교회사역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장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인 (2010).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현정 (1995). **기독교 무용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2006).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2019). **신앙과 삶**, 2019 vol 2.

뉴스앤조이 기사 원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16>